

靈樞·腸胃에 대한 연구

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Study on the Jangwi of Young Chu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Jangwi(腸胃) was recorded to Young Chu(靈樞)'s volume 33. Also, This Was recorded in Tae So(太素)'s volume 10 Sindo Jangdo(身度 腸道), Gap Eul(甲乙)'s volume 2 Goldojangdojangwisosujechil(骨度腸道腸胃所受第七) and You Gyung(類經)'s volume 4 Jangsnagyou Jangwidaesojisu(臟象類 腸胃大小之數). Reason which call that it is Jangwi(腸胃) is that is describing length, width, diameter, weight, capacity, bends state of digestive organ from mouth to rectum. This chapter can not be understood in view of yin and yang five elements with Makedo(맥도), Goldo(骨度). This chapter can approach from specially viewpoint that is anatomy. Name of This chapter's terminology and position and types are very realistic. I feel pity that study does not exist about this. Therefore, I compared with comments of several doctors and modern anatomy. I believe that will be beaconed to understand This chapter.

Key words : Young Chu(靈樞), Jangwi(腸胃), digestive organ, anatomy

서론

「腸胃」는 靈樞 第三十二에 編述되어 있는 것으로, 「太素」에는 「卷第十三身度」 가운데 腸度에, 「甲乙」에는 卷二 「骨度腸度腸胃所受第七」에, 「類經」에는 四卷 藏象類 「腸胃大小之數」에 記述되어 있다.

「腸胃」는 입으로부터 直腸까지의 消化經路에 포함되어 있는 각 器官의 길이, 넓이, 直徑重量, 容量 및 굽어지고 重疊되어 있는 상태를 記述하였으므로 篇名을 삼았다.

本篇은 「骨度」·「脈度」와 더불어 古人들이 韓醫學의 理論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陰陽五行의 觀點이 아닌 事實에 근거하는 解剖學的 觀點에서 人體를 理解하고 있는 것으로서 特色이 뚜렷하며, 그 가운데 現代의 解剖學的 觀點과 매우 近接된 方式으로 人體를 理解하기 위한 것이 「腸胃」이다. 따라서 본 편에 있는 用語들은 事實적인 것으로서 그 명칭과 위치 및 형태 등이 뚜렷하지만 이에 대한 研究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각 주석을 비교하고 現代의 해부학적 명칭을 살펴봄으로써 본 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研究하였다.

방법 및 자료

本篇은 原文과 註釋에 懸吐를 하여 理解하기 쉽게 하였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直譯, 考察 및 結語의 순서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王의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 다. 校勘에 引用的 文獻은 <表 1>과 같다.
-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適當한 音과 訓을 擇하였다.
- 마. 較註는 <表 2>의 자료에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釋 중에서 가장 適當한 것을 國譯하였다.
- 바. 直譯은 原文의 文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 사. 意譯은 舍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해석하였다.
- 아.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較註에 '[]', 引用文獻에 「『』」, 인용편과 논문에 「『』」로 表示하였으며 脚註는 ' 1), 2), 3) ……」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表 1. 校勘에 引用的 文獻 및 略稱

번호	書	名	약칭
1	黃帝內經太素		太素
2	甲乙經		甲乙
3	類經		類經

* 교신저자 : 정헌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6/10/09 · 수정 : 2006/11/06 · 채택 : 2006/11/29

表 2. 校註書目 및 略稱

番號	註釋家	時代	註釋書名	略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王 冰	唐(762)	黃帝內經靈樞	王
3	馬 蒔	明(1580)	靈樞注證發微	馬
4	張介賓	明(1624)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1672)	靈樞集注	張
6	山東中醫學院	(1979)	甲乙經校釋	甲校
7	郭寯春	(198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연구내용

【原文】

黃帝問於伯高曰¹⁾ 余願聞六府傳穀者之 腸胃之大小長短과 受穀之多少는 奈何

伯高曰²⁾ 請盡言之호리이다 穀所³⁾從出入의 淺深遠近長短之 度는 唇至齒히 長은 九分이오 口廣은 二寸半이며 齒以後至會厭 이 深三寸半이요 大容이 五合이라 舌은 重十兩이요 長七寸이요 廣二寸半이라 咽門은 重十兩이요 廣一寸半이요 至胃는 長一尺六寸⁴⁾이며 胃紆曲屈을 伸之면 長二尺六寸이요 大一尺五寸이요 徑 五寸이요 大容三斗五升⁵⁾이라 小腸은 後附育하야 左環回日迭積 하고 其注於回腸者는 外附於臍上하며 回運環十六曲이니 大二寸 半이요 徑八分分之少半이요 長三丈三尺⁶⁾이라 回腸은 當臍左環 하야 回周葉積而下하야 回運還⁷⁾反十六曲이니 大四寸이요 徑一 寸寸之少半이요 長二丈一尺이라 廣腸은 傳育⁸⁾하야 以受回腸하 고 左環葉積⁹⁾上下니 辟大八寸이요 徑二寸寸之大半¹⁰⁾이요 長二 尺八寸이라 腸胃所入至所出¹¹⁾이 長은 六丈四寸四分이요 回曲環 反은 三十二曲也¹²⁾니이다

【校勘】

1) 黃帝問於伯高曰: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黃帝問伯 高曰”로 되어 있다.

2) 伯高曰: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伯高答曰”로 되어 있다.

3) 穀所: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穀之”로 되어 있다.

4) 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 咽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長一尺 六寸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咽大二寸半 至胃長一尺六寸”으로, 『甲乙 卷二·骨度腸度腸胃所 受第七』· 『類經 卷四 藏象類·腸胃小大之數』에는 “咽門重十 兩 廣一寸半”이 “咽門重十兩 廣二寸半”으로 되어 있다.

5) 大容三斗五升: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大容三斗”로 되어 있다.

6) 小腸後附育 左環回日迭積 其注於回腸者 外附於臍上 回運環 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少半 長三丈三尺: 『太素 卷十三身 度·腸度』에는 “小腸後傳育 左環葉積 其注於回腸者 外傳於臍上 回運環反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分之少半 長三丈二尺”으로, 『甲乙 卷二·骨度腸度腸胃所 受第七』에는 “小腸後附育 左還迴 周 其注於回腸者 外附於臍上 回運環反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 分之少半 長三丈二尺”으로, 『類經 卷四 藏象類·腸胃小大之數』 에는 “小腸 後附育 左環回日迭積”이 “小腸後附育 左環迴周疊積”으 로, “長三丈三尺”이 “長三丈二尺”으로 되어 있다.

7) 會運還: 『太素 卷十三身度·腸度』· 『類經 卷四 藏象類·腸 胃小大之數』에는 “會運環”으로 되어 있다.

8) 廣腸傳育: 『太素 卷十三身度·腸度』· 『甲乙 卷二·骨度腸 度腸胃所受第七』· 『類經 卷四 藏象類·腸胃小大之數』에는 “廣腸傳育”으로 되어 있다.

9) 左環葉積: 『甲乙 卷二·骨度腸度腸胃所受第七』에는 “左環 葉積”으로 되어 있다.

10) 徑二寸寸之大半: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徑二寸大 半”으로 되어 있다.

11) 腸胃所入至所出: 『類經 卷四 藏象類·腸胃小大之數』에는 “腸胃初入至所出”로 되어 있다.

12) 回曲環反 三十二曲也: 『太素 卷十三身度·腸度』에는 “其回 曲環反 三十二曲”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會厭: 咽喉의 위쪽에 있어서 水穀을 分離하며 呼吸을 맡고, 呼吸과 食物이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喉頭蓋에 해당된다.

(2) 咽門: 會厭의 뒤쪽 아래에 있는 음식물이 넘어가는 곳)으로 食道에 해당된다.

(3) 紆: 誼也, 굽을 우

(4) 曲屈: 屈曲, 구불구불함.

(5) 伸: 舒也, 펼 신

(6) 回腸: 大腸이다.³⁾

(7) 環: 繞也, 돌릴 환

(8) 還: 與環同, 돌릴 환

(9) 反: 回遠, 돌아올 반

(10) 廣腸: 大腸의 끝부분으로 直腸이다.⁴⁾

(11) 辟: 與關通, 열 벽

【較註】

[1] 唇至齒長九分 口廣二寸半 齒以後至會厭 深三寸半 大容五合 舌重十兩 長七寸 廣二寸半

馬는 “이는 生命이 있는 뒤에는 모든 것이 水穀이 낳는 營養 에 의존하므로 腸胃를 전적으로 눈송하였다. 胃는 水穀의 受納을 주재하고, 腸은 傳導와 變化를 주재하여 精液과 血氣가 이로 말 미암아 발생된다. 越人이 말하기를 口는 飛門이 되고, 齒牙는 戶門이 되고, 會厭은 吸門이 되고, 胃는 賁門이 되고, 太倉下口는 幽門이 되고, 大小腸은 闕門이 되고, 下極은 魄門이 된다고 하였으니 무릇 口와 齒牙가 곧 水穀을 받아들이는 처음이 되므로 먼저 齒牙의 넓이와 길이를 눈송하였다. 혀는 口를 맞이하고 주재하는 곳이니 혀가 정상인 뒤에야 비로소 五味를 알 수 있다.”⁵⁾고 하였다.

1) 景岳: 會厭은 在咽喉之上이니 乃所以分水穀하고 司呼吸而不容其相混者也라

2) 楊上善: 咽은 會厭後下食孔也라

3) 楊上善: 回腸은 大腸也라

4) 景岳: 廣腸은 大腸下節也니 亦名直腸이라

5) 馬蒔: 此는 言有生之後에 總藉水穀之所生養 故로 專論其腸胃라 胃主受納水穀 腸主傳導變化 其精液血氣 由此而生焉이라 越人이 曰 唇爲飛門

[2] 咽門重十兩 廣一寸半 至胃 長一尺六寸

景岳은 “咽門은 곧 食喉이니 그 이름을 咽이라 하였다. 胃까지 一尺六寸의 길이는 胃脘까지를 말한다.”⁶⁾고 하였다.

[3] 胃紆曲屈 伸之 長二尺六寸 大一尺五寸 徑五寸 大容三斗五升

楊은 “胃는 中央은 크고 양쪽 옆은 적으며 이를 펴서 재보면 二尺六寸이다. 둘레가 一尺五寸이므로 大라고 하였고, 지름은 五寸이며, 水穀은 三斗를 담을 수 있다.”⁷⁾고 하였고, 景岳은 “紆曲은 굽이를 말한다. 大는 周圍의 크기를 말하고 徑은 지름을 말하니 나머지도 이를 따른다. 平人絶穀篇에 胃 가운데 穀食이 항상 二斗 머물러 있고 水 一斗五升이 차있다고 하였다.”⁸⁾고 하였다.

[4] 小腸後附胃 左環回日迭積 其注於回腸者 外附於臍上 回運環十六曲 大二寸半 徑八分之少半 長三丈三尺

楊은 “傳는 附의 뜻이다. 糟粕은 胃로부터 小腸으로 傳入되고 小腸은 背部에 붙어서 回腸으로 이어지고 밖으로 臍上의 附近에 있다.”⁹⁾라고 하였고, 景岳은 “小腸은 胃의 아래에 있으니 臍上 二寸의 부위에 있고 뒤쪽으로 背部를 따라서 왼쪽으로 돈다. 回腸과 연결되는 下口는 밖으로는 臍上 二寸의 부위에 있으니 水分穴의 부위가 이곳이다. 八分之少半은 八分 이외에도 1/3이 더 있는 것이니 나머지도 이와 같다.”¹⁰⁾라고 하였다.

[5] 回腸 當臍左環 回周葉積而下 回運還反十六曲 大四寸 徑一寸寸之少半 長二丈一尺

楊은 “回腸은 大腸이다. 小腸은 背部에 붙어서 뒤쪽에 있고 大腸은 배꼽 부근으로 앞쪽에 있으므로 大腸輸가 위쪽에 있고 小腸輸가 그 아래에 있다.”¹¹⁾고 하였고, 景岳은 “廻腸은 大腸이다. 葉積은 나뭇잎이 쌓인 것과 같은 것이며 또한 겹쳐서 쌓여 있다는 뜻이다. 大腸의 上口가 바로 小腸의 下口이니 배꼽부근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아래로 廣腸과 이어진다.”¹²⁾고 하였다.

[6] 廣腸傳育 以受回腸 左環葉育上下 辟大八寸 徑二寸寸之大半 長二尺八寸

楊은 “廣腸은 白臚이니 背部에 붙어서 大腸에서 오는 糟粕을 받아들인다. 辟은 育에 붙어있다는 뜻이다. 白臚은 가운데가 八寸이 되고 위로는 大腸과 이어지는 부위이고 아래로는 나가는 곳이며 모두 지름이 二寸반이며 전체 길이는 二尺八寸이다.”¹³⁾

라고 하였고, 景岳은 “廣腸은 大腸의 끝 마디이니 또한 直腸이라고 한다. 直腸은 뒤쪽에 있어서 背部를 돌아서 내려가므로 傳育이라고 하였으니 傳는 布의 뜻이다. 葉育上下는 背部의 위아래에 겹겹이 쌓여서 尾骶까지 이른다. 辟은 闊과 같은 것이니 가장 넓기 때문이므로 辟大八寸이라 하였다.”¹⁴⁾고 하였다.

[7] 腸胃所入至所出 長六丈四寸四分 回曲環反 三十二曲也

楊은 “咽門의 위쪽은 들어오는 것이 되고 廣腸의 아래는 나가는 곳이 되며, 입술과 齒牙는 서로 九分 떨어져 있고 齒牙와 會厭은 서로 三寸半 떨어져 있고 會厭에서 胃咽까지는 길이가 一尺六寸이고 胃의 길이는 二尺六寸이고 小腸의 길이는 二丈一尺이고 廣腸의 길이는 二尺八寸이므로 六丈四寸四分이라 하였다. 胃는 一曲이 있고 小腸은 十六曲이 있고 大腸은 十六곡이 있으며 합하여 三十二曲이라고 하는 것은 胃가 크지만 曲이 짧으니 그 숫자를 더하지 않았으므로 三十二曲이 있다고 하였다. 모두 키가 七尺五寸이 되는 正常人을 基準으로 삼았다.”¹⁵⁾고 하였다.

【國譯】

黃帝께서 伯高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六府의 水穀이 傳導되는 것과 腸胃의 크기와 길이와 水穀을 收容하는 量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伯高가 말하기를 請하건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水穀이 드나드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度數는 입술에서 齒牙까지의 길이는 九分이고, 입의 넓이는 二寸반이며 齒牙로부터 會厭까지의 깊이는 三寸반이고 크기는 五슴을 담을 수 있다. 舌은 무게가 十兩이고 길이는 七寸이며 넓이는 二寸반이다. 咽門은 무게가 十兩이고 넓이는 一寸반이고 胃까지의 길이는 一尺六寸이다. 胃는 굽어있어서 이를 펴면 길이가 二尺六寸이고 크기는 一尺五寸이고 直徑이 五寸이고 크기는 三斗五升을 담을 수 있다. 小腸은 위의 등쪽으로 붙어서 왼쪽으로 돌면서 굽이굽이 쌓여 回腸으로 이어지는 것은 밖으로는 배꼽 부위에 붙어 있으며 열 여섯 번을 굽이돌고 크기는 二寸반이고 지름은 八分하고 3/1分이고 길이는 三丈三尺이다. 回腸은 배꼽부위에서 왼쪽으로 돌아 나뭇잎이 처럼 쌓여서 열 여섯 번을 굽이돌며 크기는 四寸이고 지름은 一寸寸하고 1/3分이고 길이는 二丈一尺이다. 廣腸은 등에 붙어서 回腸과 이어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등쪽 아래에 있고 크기는 八寸이고 지름은 二寸하고 2/3分이고 길이는 二尺八寸이다. 腸胃가 드나드는 전체의 길이는 六丈四寸四分이고 모두 서른 두 번을 굽이듭니다.

고찰 및 결어

본편은 消化器係의 크기와 길이 등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이요 齒爲戶門이요 會厭爲吸門이요 胃爲黃門이요 太倉下口爲幽門이요 大小腸會爲闕門이요 下極爲魄門이라하니 蓋唇齒乃始受水穀之門 故로 先論齒之廣長이라 舌者는 主衛使之迎糧하니 舌和而後能知五味라
6) 景岳: 咽門은 卽食喉也니 其名曰咽이라 至胃長一尺六寸은 乃莖胃脘而言이라
7) 楊上善: 胃中央大하고 兩頭小하며 伸而度之면 二尺六寸也라 圓之는 有一尺五寸하니 曰大도 量徑은 有五寸也요 容水穀은 三斗也라
8) 景岳: 紆曲은 曲折也라 大는 言周圍之數요 徑은 言直過之數니 餘準此라 平人絶穀篇에 曰 其中之穀이 常留二斗하고 水一斗五升而滿이라하니라
9) 楊上善: 傳는 附也라 糟粕은 從胃傳入小腸하고 小腸附胃하야 外注回腸於臍上也라
10) 景岳: 小腸은 居胃之下하니 在臍上二寸所하고 後附於胃하야 左旋而環이라 其下口注於回腸者는 外附近於臍上二寸이니 當水分穴處是也라 八分之少半은 言八分之外에 尙有一分之少半也니 餘放此라
11) 楊上善: 回腸은 大腸也라 小腸은 附胃而在後하고 大腸近臍而在前하니 故大腸輸在上하고 小腸輸在其下也라
12) 景岳: 廻腸은 大腸也라 葉積은 如葉之積이니 亦疊積之義라 大腸上口는 卽小腸下口니 當臍左旋而下接廣腸也라
13) 楊上善: 廣腸은 白臚也니 附胃以受大腸糟粕이라 辟은 着育也라 謂白臚當中寬八寸하고 上受大腸之處하고 下出泄處하며 皆徑有二寸半이며 總長二尺八寸也라
14) 景岳: 廣腸은 大腸下節也니 亦名直腸이라 直腸은 居後하야 繞育而下故로 曰傳育이니 傳는 布也라 葉育上下는 言疊於育之上下而至尾骶也라 辟은 闊同하니 以其最廣 故로 云 辟大八寸이라
15) 楊上善: 咽之上口爲所入하고 廣腸之下以爲所出하며 唇齒相去九分하고 齒與會厭相去三寸半하고 會厭至胃咽長一尺六寸하고 胃之終始長二尺六寸하고 小腸終始長二丈一尺하고 廣腸終始長二尺八寸 故로 有六丈四寸四分也라 胃有一曲하고 小腸十六曲하고 大腸十六曲로대 合而言之에 計三十二曲은 其胃大曲短하니 不入其數 故로 有三十二曲이라 皆以七尺五寸中度之人이 爲準也라
16) 馬蒔: 蓋唇齒乃始受水穀之門 故로 先論齒之廣長이라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인체를 記述하였다.

原文에 입술, 입, 치아 등으로부터 논술을 시작한 것은 馬蒔가 『難經·四十四難』의 “唇爲飛門이요 齒爲戶門이요 會厭爲吸門이요 胃爲賁門이요 太倉下口爲幽門이요 大小腸會爲闕門이요 下極爲魄門이라”의 기록에 근거하여 입술과 치아가 곧 水穀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므로 먼저 齒牙의 넓이와 길이를 논술하였다.¹⁶⁾

원문에 나타난 해부학적 부위의 명칭은 會厭은 喉頭蓋에, 咽門에서 膈까지는 食道에, 小腸은 十二指腸으로 포함하여 空腸을, 回腸은 回腸과 結腸上段을, 廣腸은 S字形結腸과 直腸을 가리키는 것으로 思料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2. 楊上善 著, 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출판사·年度未詳.

3. 王冰. 靈樞經.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2.
4. 陳夢雷 等.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王馬張合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5. 馬蒔,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6. 張介賓. 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82.
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大一書局, 1977.
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9.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참고사건류

1.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1.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北, 1985.
6. 金赫濟 金星元編著; 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7. 金賢濟 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